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메타버스, 게이미피케이션 99% 유사… 과도한 포장 멈춰야”

기조강연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부작용 지적 “과열 양상…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메타버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의 현 주소를 짚어내고 날카롭게 진단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될 부작용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산업이 혼란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우선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산업계에서 잘못 해석되고 있음에 초점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을 맞췄다.

메타버스는 신기술이 아닌 게임 확장 혹은 현실 물리 세계와 가상 정보 세계의 융합의 개념으로 과거부터 있었던

용어라는 것.

하지만 현재 VR, AR 관련 새롭게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관련자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메타버스를 잘못된 정의로 해석하면서 시장을 완전 뒤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관련자들은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메타버스를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주커버그, 존 라도프, 위키토리, 게이미피케이션 등을 예시로 들면서 앞서 얘기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는 게이미피케이션과 99% 유사하다. 비게임 분야에서 게임적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메타버스며 현재 게임을 연구하는 전문가

들이 말하는 융합적 경험의 이론적 근거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라는 정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논의가 되어 왔으며 전혀 새롭지 않은 시장”이라고 전제한 후 “쉽게 말해 게임 융합 현상중 하나에 불과할 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새로운 형태로 둔갑시켜 성장동력, 미래의 먹거리 등 과도하게 포장하고 환상을 전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버스라는 정의자체를 한국에서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메타버스 옹호론자들은 앞서 올바른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해 뜨겁게 달궜던 메타버

스 시장의 허상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글로벌 기업 메타, 매직립의 파산, 직원 해고 등을 예시로 들면서 언급했다.

또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학생들의 설문조사도 예시로 들었다. 설문 조사 중 86% 이상이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제언했다.

이처럼 메타버스 정의와 현 주소에 대해 날카롭게 얘기하는 이유는 메타버스 열풍 등으로 과열된 한국에서 메타버스를 맹신하는 스타트업, 일반인, 작은 게임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건을 수없이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메타버스에 너무 맹신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품격이 다른 ‘초격차’ 논하는 혁신의 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메트로가 자랑 하는 포럼 ‘뉴테크 포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대는 기술 패권의 시대의 시대로, 과학기술은 경제의 기반이자 나라의 안보입니다.

대만의 TSMC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도체 회사 하나 때문에 중국이 감히 침공을 한다거나 어쩌지 못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TSMC는 수십만명의 군인과 탱크, 미사일, 전투기, 전함을 대신하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도 결국 기술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겠지요. 두 초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서 아직 그 존재감을 유지하며 몸값을 높이는 것은 과학기술의 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열심이고 R&D에 GDP의 4%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활발한 혁신을 이루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IT 분야에서는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다고는 하지만 뉴테크 분야를 중심으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개회사 하고 있다.

로 아직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수준이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선 미래기술 분야에서는 더 격차를 벌여야 합니다. 메타버스나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초격차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격차를 운운할 때 ‘격’ 자는 ‘거리 격’자가 아니라 ‘품격’ 할 때의 격, 즉, ‘격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즉, 품격이 다른 기술수준을 지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품격을 높이고 다른 나라와는 아예 품격이 다른 초격차전략을 논하는 혁신의 현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채윤정 기자 echo@

AI·메타버스 시장 선도 계기가 되길

축사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과 산업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저출산과 기후위기 팬데믹과 공급망 분리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고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 융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 더 많은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빛나 기자

메타버스, 국책사업으로 확장 돼야

축사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 회장

먼저 뜻 깊은 포럼의 장을 만들어 주신 메트로 경제 신문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화두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핵심인 AI와 볼륨 매트릭스를 이용한 거대



디지털 휴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시대의 테크놀로지와 환경은 반영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년 전 닐 스티븐슨의 작품에서 처음 언급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로 불과했지만, 이제는 기업과 국가 차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이 바로 오늘 포럼의 주제이 기도 한 AI와 메타버스 가상인간입니다.

산업 적용 가능성과 확장성이 여타 기술 보다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AI 파생시장의 글로벌 가치가 무려 5천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산학연 모두가 AI·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비즈니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국가와 민간 주도 하에 국책사업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시대의 국가적 지원과 세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협력 상생은 동반되어야 하고, 학술적 논의와 함께 (메타버스가) 국가와 민간 주도 하에 국책사업으로 확장 될 수 있게 지원·관리 해야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이사회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허경윤 기자 zelkova@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中 시진핑, 사회주의국 정상 연쇄 초청
- ▲ 中 북핵대표 “냉정 유지…각자 우려 균형있게 해결”



- ▲ 日 기사다, 선거비용 회계 부실 처리 사과…개각설은 부인
- ▲ 日 증시, 미 금리인상 둔화 전망에 상승 출발…닛케이지수 0.92% ↑



- ▲ 美, 日 오키나와 기항 ‘핵잠수함’ 이례적 공개
- ▲ 美 법무부, 1·6 폭동 조사 관련 펜스 전 부통령 증인 채택 검토